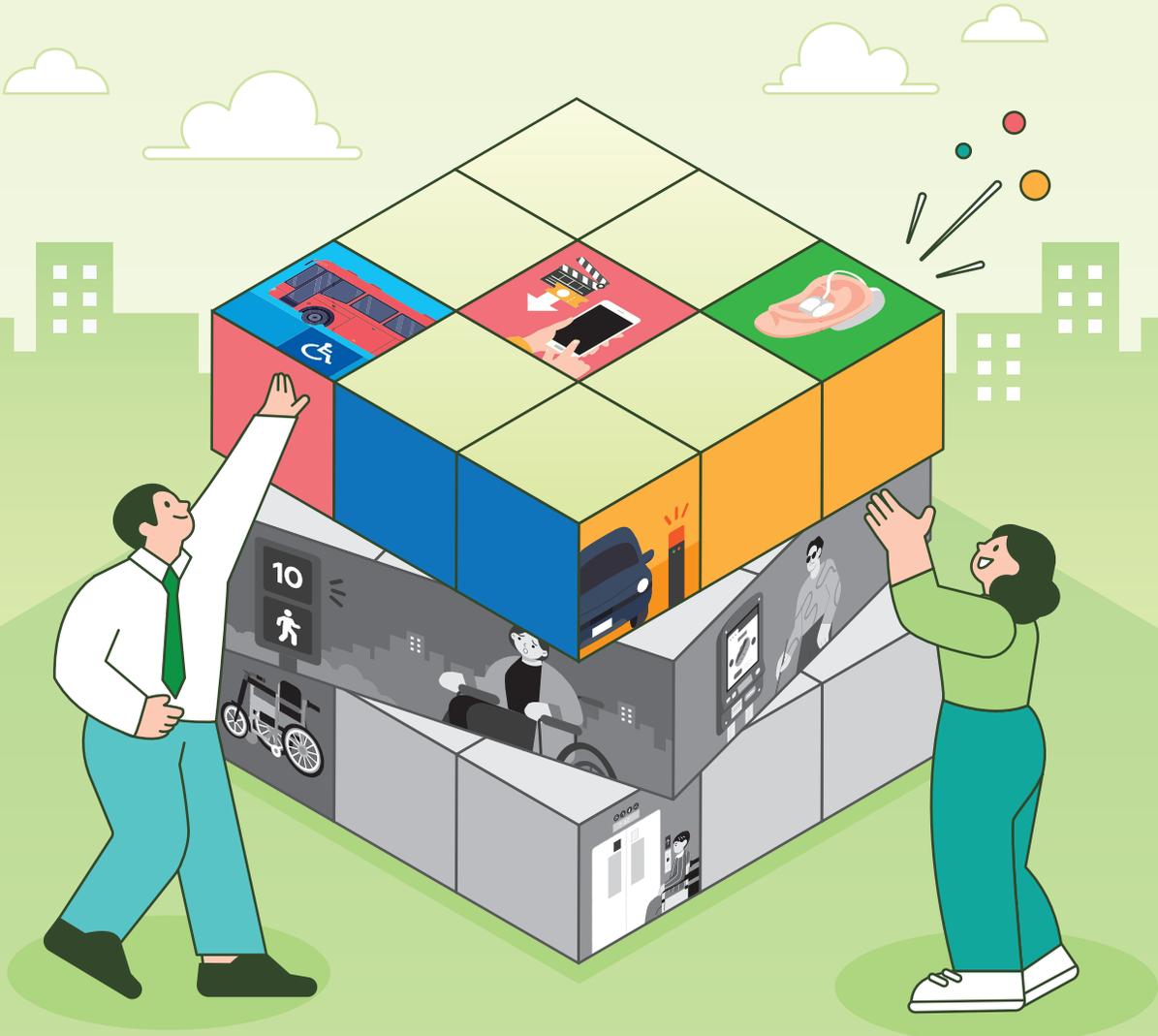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4.2.15. _ Vol.440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이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우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보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신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유진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 지면 사정으로 담지 못한 더 많은 사례들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 내 '한국장총자료' 또는 '제도개선' 메뉴를 통해 파일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 일상이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밤이 되어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생활을 일컬음
- 일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이동편의, 주거, 교육, 고용, 문화예술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들 중에는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불편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불편도 존재함
- 특히, 사회적 약자로 많이 언급되는 장애인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불편과 차별을 많이 겪고 있음. 대표적인 예시로, 시위로 인해 근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하철 탑승 시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안타깝게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이 항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원을 넣더라도 '법(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을 받은 함

■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바뀌어야죠!

- 불편과 차별이 쌓이고 쌓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름
-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계가 협력하게 되었으며, 장애 유형별 및 직업별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하고 건의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2011년에 탄생함
- 13개 단체에서 시작하여 2024년 현재 2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구분	단체명
1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장애인법연구회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5	한국농아인협회
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8	한국신장장애인협회
9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10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1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구분	단체명
13	한국장애인문화협회
1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5	한국장애인부모회
16	한국장애인연맹
1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8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19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1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2	더인디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 사진

■ 그동안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왔을까

- 주로 이동편의 분야의 안전이 많았으며, 그 외에도 보조기기, 정보접근,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이 발굴됨
- 최근 3개년 간의 성과를 살펴보자면, 2023년에는 총 17개의 안전 중 9개(약 53%), 2022년에는 총 20개 안전 중 10개(50%), 2021년에는 20건 중 12건(60%) 정도가 개선 또는 개선 예정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50여 차례 이상, 2022년에는 70여 차례 이상, 2021년에는 60여 차례 이상 안전들에 대해 언론사 보도가 되었으며, 보도 외에도 언론사 인터뷰, KBS 라디오 송출, 사랑의 가족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다루고 이슈화함
- 다음 장에서는 분야별로 어떤 안전들이 상정되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돌아보기

▲:개선이 잘 된 사례 ▼:개선이 되지 않은 사례
(-):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쉬운 사례)

이동편의

▼ 당사자가 타고 있는데도 제 값 받았다고요?

...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요금 미감면

-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는 특수하게 장애인만이 탈 수 있는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되지 않음
- 통행료는 보통 탑승하고 있는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납부하거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가야하는 경우도 발생
- 2012년에 처음 문제제기 되었으며,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에 탑승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만65세 이상 노인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개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동일한 문제제기는 이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23년에도 있었으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대처의 기술 발전

... ICT 기술로 불법주차 단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종류에 따라 주차면의 2~4%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으며,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현재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2011년까지는 주차단속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담당 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다보니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고, 2011년 12월부터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바뀜
- 그러나 제도가 바뀐 초반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이 쉽지 않았고, 2013년에는 해당 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음
- 최근에 와서는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보복 등의 이유로 신고를 머뭇거리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상황도 발생함
- 2020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였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경고

음이 계속 울려 주차를 막는 시스템임



경고음과 함께 불이 들어오는 장면 © 강남구청(21.02)

- 이에 2022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ICT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으며,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음. ICT 기술을 이용한 불법주차 단속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장애인의 보행 속도는 비장애인과 달라요

... 녹색신호시간 점점 필요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비장애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됨
- 한편, 횡단보도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여 녹색신호시간을 설정하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0.8m 당 1초로 규정하여 녹색신호시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신호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함
- 동일한 안전이 2020년에도 상정된 적이 있으며, 두 안전 건 모두 녹색신호시간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Worst ▼ 장애인은 조문할 수 없는 장례식장

... 여전히 단차와 좌식 식탁으로 어려움 겪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에도 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승강기 설치 등을 해야 함
- 장례식장 건물 자체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으나 정작 조문을 위한 분향소 진입이나 식사를 위한 장소 등에는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음
- 분향소 입구에는 단차가 존재해 들어가지 못하거나 좌

식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식사할 수가 없음
- 2015년에 장례식장 내에 이동식 경사로 및 조립식 식탁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바뀌지 않았으며 동일 안건이 2021년에도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목록부담인 상황임



장례식장 일반적인 식당 모습 © 에이블뉴스(14.11)

▲ 무장애(Barrier Free) 버스 승강장이란?

… 휠체어 등 모두가 버스 승하차 가능

- 버스 승강장은 버스의 승하차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승강장마다 버스와의 단차가 다르며, 비장애인보다 탑승시간이 길어 버스 타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
- 2015년에는 승강장에 있는 장애인을 두고 지나가지 않도록 장애인 승차대기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버스 대기 정보를 버스 운전자가 승강장 도착 전에 알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저상버스도 많이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탑승에 용이하도록 도로 경계석 기준을 정하고 휠체어 자리를 표시하는 등 무장애 버스 승강장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내고 있음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다시 한 번 전국에 무장애 버스 승강장을 설치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대전은 예약시스템도 구축하여 저상버스 탑승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함
- 무장애 버스 승강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무장애 승강장 내 휠체어 자리 표시 © 에이블뉴스(16.04)

Best ▲ 이용에 제약이 많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일반단말기와 휴대전화 GPS, 복지카드로!

-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을 지원받고 있으며, 하이패스로 감면 받고자 할 때 일반단말기가 아닌 감면단말기를 이용해야 함
- 감면단말기는 지문 인식을 해야 사용가능하며, 4시간마다, 차량 시동 켜 때마다 재인식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 방문, 한국도로공사 방문, 판매대리점 방문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지문이 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감면단말기가 이용하기 어려우며, 이용 및 정보 변경에 번거로운 절차가 너무 많아 불편이 있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2017년 및 2019년, 2020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함
- 2022년 11월부터는 일반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당사자 소유의 휴대폰 위치 인증과 통합복지카드 결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

(-)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 여전히 가족사랑화장실 명칭 혼용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시설 등 설치 시 규정 미준수로 장애인의 화장실 선택권이 사실상 없어져버림
- 아동용 변기 등 설치로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회전공간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한정된 화장실을 노인, 아동과 함께 사용하며 대기시간도 증가하게 됨



가족사랑화장실 내부 좁은 공간 © 에이블뉴스(20.11)

- 2018년 가족사랑화장실 내 편의시설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을 분리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화장실

- 을 장애인화장실과 분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이용에 불편을 겪어 2020년에 재건의 하였음
- 한국도로공사는 편의시설 개선은 완료하였고, 장애인 화장실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2024년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황임

▲ 시각장애인 보행 시 큰 장애물 '전동킥보드'

… 견인료, 즉시견인구역 등 설정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중화됨
- 문제는 이용은 쉽지만, 주·정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고 가버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 시각장애인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진입이나 통과가 어려움
-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즉시견인구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청함
- 당시 3개의 지역(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되었다고 했으며,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견인료나 견인가능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음

문화·관광·예술

▼ 장애인 렌트할 수 없는 렌터카

… 운전용 보조기기 부착 렌터카도 미비

- 여행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나 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렌트가 필요함
- 하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뇌병변 장애는 운전용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운전용 보조기기가 설치된 차량이 거의 없음
- 사람 중심이 아닌 차 중심의 장애인차량 표지가 발급되다 보니 렌터카에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붙일 수 없고 그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불가 등의 이슈도 생김
- 2015년에는 렌터카에도 장애인차량 표지 부착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시범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된 제주

도에 운영해볼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없이 운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2019년 및 2021년에는 운전용 보조기기가 부착된 렌터카가 대여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했으나 바뀌지 않음

Best ▲ 영화관 티켓도 현장에서만 할인 가능했다

…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예매

- 주말 및 황금시간대에는 영화 관람을 위해 미리 예매를 해주지 않고는 원하는 시간대나 좋은 좌석의 티켓을 구매하기가 어려움
- 2013년까지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불가하고 현장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
- 그로 인해 원하는 시간대나 원하는 좌석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김
-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온라인으로도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했으나, 그 당시 영화관은 온라인으로 일반 예매를 한 후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 현재의 방식이 당연해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이루어낸 결과임

▲ 큰 호텔이어도 장애인객실은 1개뿐

… 의무비율 1% 증가, 유리부스 지양 안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시설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그 비율이 0.5%에 그친다는 것임. 호텔이 보유한 객실이 200실이어도 의무 보유 장애인객실은 1개에 그침. 이로 인해 여행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저해됨
- 또한 일반객실과 달리 장애인객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확률이 크나, 샤워실을 이용할 때 그 경계가 유리로 이루어져 진입이 불가하거나 깨지거나 넘어질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임



한 호텔의 유리 샤워실 내부 © 한국장총(23.08)

- 2015년에는 의무보유 장애인객실을 상향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의무보유 장애인객실 비율이 1%로 상향됨
- 2023년에는 샤워부스 내 유리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유리부스 설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에 안내하겠다고 답변함

Worst ▼ 자연에서 휴식할 수 없는 장애인

... 아직 실태조차 알 수 없어

- 산림청에서는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이용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정적임
- 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이며 설치기준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2016년에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음. 2023년에도 기타안건으로 동일한 안건이 상정됨. 당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일부 휴양림 시설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함
-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태조사나 편의시설 보수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기기

Best ▲ 현실과 괴리감 있는 보청기 급여기준

... 급여도 상향, 양이로도 확대

-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가며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으로 분류됨
- 보청기 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아날로그형은 20~150만 원, 디지털형은 200~5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보험급여는 34만 원에 그치며 1대 기준이라 양쪽(2대)에는 적용이 안됨
- 2012년에는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성장기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보청기 보험급여를 양쪽(2대)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하였음
- 2020년 7월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일반청각장애인은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은 양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실효성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되려면

... 10% 자부담은 그대로지만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 유지 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거나 고용 중인 사업주 또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가 해당됨
- 비영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는 5인 이상이어도 사업주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으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1인 장애인 사업주도 신청할 수 없음
- 2016년에 근로자 5인 이상의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5인 이상의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가 상시 5인 미만의 일반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경제활동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거부함
- 2018년에는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들음
- 불행 중 다행으로 2022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게 됨
- 한편, 무상으로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고가 보조기기 편향 선택 및 무분별한 반납 등으로 2024년부터 자부담 10%를 부과하겠다는 고시 개정을 발표함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자부담 10%를 철회

할 것을 강경하게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 차례의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림

- 그 결과 10%를 유지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기준금액(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게 됨

▲ 생리학적 기준만으로 지원되는 소변수집장치

...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가도록 기준 변경

-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을 입고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하여 배뇨박스에 모이게 하는 장치이며,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중 하나임
- 단순히 '소변조절'이라는 생리학적 기준('배뇨', '화장실 이용하기'의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한 경우)만으로 교부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활동지원이 24시간이 아닌 경우나 밤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지원이 어려운 편마비, 독거 뇌병변장애인에겐 매우 필요함에도 대상이 되지 못함
- 2022년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으로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 항목이 '상당한 지원 필요'까지로 포함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요청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변수집장치의 기능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해 완성된 종합조사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소변수집장치 © 중앙보조기기센터 유튜브 화면(22.05)

Worst ▼ 고가의 동력보조장치, 아직도 지원 미비해

... 지원 절실히 필요

- 동력보조장치란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시킨 보조기기로, 휠체어에 장착하는 보조기기임
- 제품의 가격은 적게는 1~2백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함
- 현재 1~2개 종류의 동력보조장치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험급여 품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음



동력보조장치 탑승 모습 © 한국장총(21.05)

- 제품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왔으며, 실정에 맞게 보조기기 품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한 바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표본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수동휠체어와의 호환성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며 등록을 회피함

정보접근

Worst ▼ 로드뷰만으로 알 수 없는 장애인편의시설

... 지도 어플, 여전히 휠체어 입장 여부 알 수 없어

- 스마트폰 어플의 발전에 따라 지도상으로 가게나 건물의 정보, 로드뷰 등을 볼 수 있게 됨
-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2012년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주 출입구나 화장실, 경사로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 등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을 받음
- 최근에는 일부 휠체어 입장여부를 표시하는 가게들도 있긴하나 상용화되지는 않음
- 별도의 사이트(예: 스마트서울맵)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예: 장애인화장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등)를 알 수 있기는 함



카카오톡 내 식당 시설정보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표시)



▲ TV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접근권

… 메인뉴스에는 수어통역이 함께

-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널은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해야 함. 정해진 편성 실적은 채워지고 있으나 특정 시간대 및 특정 편의제공에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시청권이 제약받고 있음
- 주 시간 시청대보다는 심야, 낮 등 기타 시간대에 몰아서 편성하고 있으며, EBS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자가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2016년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주 시청 시간대 및 보도·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 방송은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함
- 이후 장애인단체는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지상파 3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 접근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출력이나 점자, 명암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셀프체크인 기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2018년에 최초로 건의되었으며 2022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재건의됨
-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 9개 공항에 총 25개의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김포공항에 설치된 2개만이 모든 유형이 사용가능하다고 함. 공항에서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는 항공사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함
- 한국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항공사측에 요청 중이며, 대한항공과 연계 테스트 중이라 밝힘. 대한항공은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버전의 키오스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약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한 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함

👍 Best ▲ 시각장애인은 5천 원=5만 원인 상품권

… 점자나 QR코드 방식으로 구분토록 개선

- 화폐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QR코드 제공이 되지 않아 구분이 불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저해함
- 2017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점자나 QR을 통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함
- 2019년에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는 재난방송

… 수어통역은 추가됐지만 TTS는 글씨

- 코로나19,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내방송 등 정보제공도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은 수어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한편, 시각장애인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받더라도 대부분 고령으로 TTS(텍스트 음성 변환)를 이용하지 못해 재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2019년에는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KBS는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을 포함하고, 타 방송사도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바뀜
- 2023년에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문자 TTS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 교육 위탁 등

▼ 셀프로는 체크인할 수 없는 키오스크

… 단 1개의 항공사만 가능해

- 공항 내 셀프체크인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공항 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됨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에 재난 정보를 제공하던 안전디딤돌의 접근성 점검을 요청함

- 행정안전부는 안전디딤돌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각장애인의 재난정보 습득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었음

주거

방문신청만을 고집하는 장애인 특별공급

... 매일, 팩스 등 방식 원천차단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0% 내 범위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여 공급 가능함
-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은 신청이 불편함
- 일반적인 주택청약이나 다른 국가재원 지원제도들도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할 수 있게 되어있음
- 2022년 전국 시·도청에 이메일이나 인터넷,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한 창구를 열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불법 명의 도용 우려로 인한 본인확인 필요성, 생애 1회 당첨 제한이라는 점, 구비서류 현장 발급 용이성의 이유로 추가 창구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Worst ▼ 고장난 승강기에 장애인은 강제 집콕!

... 장애인은 여전히 모른 채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승강기를 검사해야하고, 필요 시 수리 또는 교체하고 있음. 점검에 그칠 경우 단 몇 시간만 소요되기도 하나, 교체의 경우 수개월 등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승강기가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하게 됐을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자력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하여 출퇴근이나 병원 통원 등 필요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음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역을 만드는 관리규약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최소 2일 이상) 시 휠체어 이용 입주민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모법에 언급되어있지 않

은 것을 관리규약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의료

▲ 아동서비스에도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

... 차별을 허물고 9개 유형 포함!

-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現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ADHD 아동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임
- 조기개입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現 발달장애 재활서비스)이 사업대상을 명확히 구분되어있어 정서적 치료를 받고자 하는 비발달장애(지체장애 등) 아동은 조기개입서비스를 받지 못함
- 2012년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대상을 장애아동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이 대상으로 포함됨(현재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있음)

▲ 이미 영구적인데 재판정 받으라고요?

... 재판정 주기 4년, 3회 이후 변동 없으면 영구

-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장장애는 2010년 장애유형에 편입된 이래로 2년마다 총 3회의 재판정을 받고, 더 이상 변동이 없으면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됨
- 신장장애인은 만성신부전증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되었다는 의미고, 투석을 시작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의미해 재판정이 무의미함
-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재판정을 1회만 적용하도록 2016년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재판정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이후 변동 없으면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변경됨

Best ▲ 투석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 혈관 수술은 투석 당일 아니어도 OK!

-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위한 혈관시술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등 합병증으로 다양한 병원진료를 보고 있음

- 투석 당일에 약 4시간 동안 몸에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체력적 한계가 발생해 타 진료를 당일에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로 제한하고 있음
- 2019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당일 투석 여부와 상관없이 투석을 목적으로 한 혈관 시술·수술은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Worst ▼ 평소에 심한 빈혈 와도...조혈제 급여 안 돼

-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 저하로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되며, 조혈인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혈제를 사용하고 있음
- 조혈제는 일반적으로 1주에 3회, 한 달에 12번 정도 투약되며, 요양급여 없이 자부담하려면 1회 당 8,000원~20,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함
- 조혈제 요양급여 기준은 헤모글로빈 수치 11g/dl이나, 신장장애인의 헤모글로빈 검사 주기가 올 때까지 7~8g/dl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기도 해 매우 위험함
- 일본에서는 보험급여를 12.9g/dl까지 인정하며, 미국에서는 조혈제 치료 목표 수치로 11~12g/dl를 제시하는 등 보다 유연한 기준을 선택하고 있음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2019년과 2021년에 조혈제 급여 기준 상향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서비스

▲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표지

... 이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오

- 도로교통법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나 발급기관이 따로 없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하고 있는 상황임
-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 되려 장애인이 피해를 받는 상황도 발생

대형면허 운전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 청각장애인이 됨. 등록장애인이 되었으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남.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 있는 것으로 판결 받음

- 2012년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운전면허증 교부단계에서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배부하게 됨

Worst (-) 휠체어 맞춤형 쇼핑카트가 있다면

... 일원화된 휠체어 쇼핑카트로 난감

- 전국에는 수많은 대형마트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쇼핑카트는 별도로 없으며, 그나마 있는 휠체어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2014년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2022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이 바뀌어 3000㎡ 이상(약 907평)의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됨
- 그러나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수량이나 안내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은 설정되어있지 않아 전통휠체어나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는 이용 불가능한 이슈가 존재함
- 이에 2022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규격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회신이 없는 상황임



쇼핑카트에 휠체어가 빠져 다시 고정하는 모습 © 경남도민일보(22.12)

Best ▲ 생명유지장치 사용 요금만 월평균 3배

... 감면 대폭 확대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혜택 대상에 한해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며,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 가구에 월 8,000원 정액 감면과 월 300~600kwh 이하 사용량 구간에 일반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제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호흡기장애인은 산소발생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또는

선풍기, 가습기 등 사계절, 24시간 내내 사용해야하는 전력 기기들이 있고 누진제 감면을 받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

- 2016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하는 호흡기장애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장애인복지할인은 월 16,000원 정액감면(하계는 20,000원), 생명유지장치 누진제 감면은 30% 할인으로 변경됨.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구분	기존	개선
장애인 등	월 8,000원 한도	월 16,000원 한도 (하계 20,000원)
생명유지장치	1단계 낮은 요율 (4~6단계에서만)	30% 할인

▲ 실수로 돈 더 낸 건데, 못 돌려받는다니요

… 죄송해요, 돌려드릴게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함
- 본인부담금이 잘못 책정되어 초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없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본인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2022년부터 환급금이 발생할 시 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이 변경됨

▲ 일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활동지원사 부르세요

… 근로지원인의 영역으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근로 시 근로지원인을 통해 직업생활이 지원되고 있음
- 식사나 신변처리 등은 직업생활을 하는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활동지원서비스로 분류되고 근로지원서비스와 동시에 받을 수 없어 혼자서 어렵게 해결하는 상황이 발생함
- 2023년 근로지원인 역할에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2024년 근로지원인 업무 영역확대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역할 확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교육

Best ▲ 국·공립 유치원 입학 위한 무한 대기

… 장애부모 자녀 우선순위 입학 대상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을 위한 원아모집 공고에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어있으나 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우선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2013년, 장애부모의 자녀가 우선순위 입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지침 마련을 요청함
- 교육부는 장애부모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대다수의 지역이 찬성하여 장애부모 자녀를 우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됨

▲ 금융범죄의 사각지대 … 맞춤형 교육자료 및 콘텐츠 제작

-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으로 장애인은 금융범죄의 덮에 자주 걸림
- 장애 특성이 반영된 금융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도록 2017년과 2021년에 건의한 바 있음
- 2017년에는 장애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음성자료 변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1년에는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힘

▲ 청각장애인도 토익(TOEIC) 공부합니다

… 강의에 자막 서비스 추가!

- 취업 준비 시 토익(TOEIC) 등 어학 성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장애인들도 토익 공부를 하게 됨. 특히 청각장애인은 RC(Reading Comprehension) 시험 성적만 인정되고 있어 RC점수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온라인 토익 강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곳은 EBS와 시험을 주관하는 YBM인데 유료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2017년 EBS와 YB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토익 강의 상 자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EBS는

2018년 4월부터, YBM은 2018년 2월부터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2021년에는 시스템 안전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으나, 2023년 안전사고율이 높거나 간격과 단차가 큰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을 우선 설치하는 시범운영사업을 진행함

0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즐거찾기 시리즈

다양한 분야의 안전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정 주제 또는 소제가 자주 안전화되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즐겨찾는 소재들을 모아서 살펴보고자 함

지하철 시리즈

▲ 휠체어는 앞으로 탔다가 뒤로 내리는 '그것'

... 후면거울 보수공사 완료

- 휠체어는 승강기를 탈 때 전면으로 탑승해 후면으로 내리기 때문에 지하철 승강기 내에도 후면에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후면의 벽면거울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지하철 승강기가 다수 있어 2014년에 건의하였으며,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후면거울이 없었던 84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알림

▲ 바퀴보다 큰 지하철 승강장 간격

... 자동안전발판 시범적 운영

- 지하철 승강장의 간격(연단과 열차사이의 거리)이나 단차(승강장 바닥면과 열차 바닥면 간의 높이)로 인해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스크린도어 및 열차문 개폐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요청함



지하철 및 승강장 단차로 아슬아슬하게 바퀴가 걸린 모습 © 비마이너(20.07)

(-) 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려운 개찰구

...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교통약자 개찰구

- 지하철 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개찰구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움. 출퇴근 시간과 같이 붐비는 시간대나 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역은 비장애인이 그 개찰구를 이용해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개찰구 개방시간이 너무 짧아 부딪히는 등의 불편이 있음
- 2022년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하는 개찰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10초에서 15초로 적절하게 늘리고, 그 개찰구가 눈에 띄도록 일반 개찰구와 다른 시각적인 요소를 배치할 것을 요청함
- 서울교통공사는 타 지역의 개찰구 개방시간에 근거하여 플랩형 개집표기를 대상으로 10초에서 15초로 늘렸으며, 시각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 쪽 면 장애인 픽토그램에서 양 쪽 면 픽토그램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면서도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훼손 등을 이유로 지양한다고 밝힘

▼ 장애인이 짐인가요? 1탄

... 휠체어와 짐 동일한 구역에 놓다니요!

- 지하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교통약자석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서울 지하철에 있는 교통약자석(휠체어석)은 동행존으로도 안내가 되어 휠체어, 유모차, 캐리어(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음
-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는 법에서 명시한 교통약자가 아니며 배려의 대상이 아니기에 캐리어 픽토그램을 제외시키고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2, 8호선에 부착된 동행존 스티커를 확대 부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부착된 동행존 스티커와 일반 교통약자석 스티커에 포함된 캐리어 픽토그램은 예산 및 혼잡도 상 제거할 수 없다고 답변함. 대신 '휠체어 우선'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었다고 함



2호선 지하철 내 동행존 (휠체어와 짐 표시 동시 표현)

항공기 시리즈

(-) 활주로에서 업히거나 기어서 탈 수 없잖아요

… 탑승교 제약은 여전, 리프트카 도입 등 노력

-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활발해지면서 항공기 탑승 빈도도 늘어나고 있음
- 항공기 탑승을 위해 대부분 탑승교를 이용하나, 공항의 여건상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어 활주로부터 탑승하는 경우가 있음
-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탑승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승강설비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탑승교 배정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을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하나 오늘날에도 탑승교의 개수 제한으로 완전히 우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항공사에서는 휠체어 리프트카가 구비된 승강장비를 대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보임. 최근 제주항공에서는 자체적으로 휠체어 리프트카를 도입하는 등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 우선좌석 배치가 아닌 선착순

… 아직도 선착순인 항공사 있어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 동선 등의 문제로 넓은 레그룸, 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한 좌석 배치가 필요함
- 2019년에 장애인 배려 우선좌석 배치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그 해 항공사업법이 개정(2020년 2월 시행)되어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항공기 내 우선좌석 운영’을 명시함
- 대한항공, 에어부산 등은 우선좌석을 운영하고 있고, 진에어는 우선좌석을 운영하지만 장애인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좌석으로 배정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현장에서만 요청 시 예매가 가능했음. 이에 2020년에 재건의를 통해 장애인 우선좌석

운영을 요청함

- 여전히 일부 항공사는 모든 좌석을 유료로 판매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우선좌석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극소량 전력 인공와우 배터리, 5개만 반입 가능

… 필요성 공감해 개선의지 밝혀

-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인은 원활한 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터리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혹시 모를 변수 상황에 대비해 여분을 항상 챙겨 다녀야 함. 특히 장거리 이동인 항공기 탑승은 더욱 많이 필요함
- 항공기 기내 반입 물품 규정에 대해 명시하는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서는 리튬 전지 전력소비가 100Wh 미만인 경우 반입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인공와우 리튬배터리는 1Wh도 되지 않아 제한사항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항공사는 5개까지만 반입가능하게 안내하고 있음
- 국내 각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고, 항공사들과 협의하여 수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개선의지를 이끌어냄

기차 시리즈

▲ 장애인 할인 없이 ‘제 값 내세요.’

… 장애인 운임도 적용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철도(기차)는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50%의 할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4인 동반석’세트는 기존 15~30% 운임 할인이 제공되고 있는데, 장애인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음
- 2023년, 4인 동반석에 대한 장애인 할인 운임 적용을 요청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의 경우 동반 1인까지 장애인 할인 운임이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함

▲ 장애인이 짐인가요? 2탄

… 모든 열차에 휠체어 전용좌석 표시

- 기차 내 전동휠체어 좌석은 의자 형태의 좌석 없이 전

동휠체어 자체를 고정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얼핏 보면 텅 빈 공간으로 오해하기 쉬움

- 좌석에 대한 안내표지도 시인성이 높지 않고, 실제로 빈 공간으로 인지해 짐을 두었다가 비장애인 승객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전동휠체어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KTX는 2023년 7월까지, 그 외 열차는 2024년까지 전용공간 표시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함



전동휠체어석에 놓인 짐 © 한국장총(23.04)

올림픽 시리즈

▼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 일부 경기에서만 편의제공

- 우리나라도 최근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적 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회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임
- 특히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으며, 올림픽과 같은 국제 체육경기에 화면해설, 자막 등 제공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개최식에서도 화면해설과 자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기도 일부 경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까지도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국제 체육경기는 거의 없으며, 자막도 일부 경기에서만 제공되는 등 시청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투석을 해서라도 경기를 보고 싶어요!

... 투석병원 2시간 연장 운영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서 개최도시와 각 부처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 내부장애인인 신장장애인은 경기 관람 또는 참가를 위해 숙박을 해야 하고 투석을 해야 하는데 병원은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2017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신장장애인의 올림픽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석병원 운영시간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2개의 병원 운영시간이 연장되었음
- 앞으로도 비슷한 국제 경기대회가 개최될 경우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 및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0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정표

■ 장애계 대표 민·관 소통창구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개별 민원을 협력해서 해결해주는 협의체로 인식되기 시작함
- 공공기관, 민간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을 포함하여 장애계 대표적 민·관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 소통 창구로서의 명성을 활용해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제도개선 활성화하고자 함

■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무엇보다 일상 속 제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문제를 발굴하고, 건의하고, 이슈화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살펴보길 바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를 바람

월간 한국장총 www.kofdo.kr

발행일 2024년 2월 15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불편과 차별

개선해드립니다!

이동·편의·정보접근 등 모든 분야

-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일인가?
- 개선을 요청해도 안 바뀌었는가?
- 사소하지만 일상에 치명적인가?

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